

분화용 유망 자생화의 주년관상을 위한 적정 분식조합

서종택* · 유동림 · 이현숙 · 남춘우 · 김수정

고령지농업연구소 원예과

Combinations of Potting Wildflowers for Year-round Observation

Suh, Jong-Taek* · Yoo, Dong-Lim · Lee, Hyeon-Suk · Nam, Chun-Woo · Kim, Soo-Jeong

*National Institute of Highland Agriculture, RDA, Pyeongchang 232-955, Korea

연구목적

자생화는 단일품목으로 분식하면 초세가 약하고 개화기간도 짧아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. 이러한 자생화들을 꽃과 잎의 관상기간을 고려하여 몇 종을 한 화분에 심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우량분식조합을 선발하여 농가 및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분화용으로 선발된 기린초, 평의비름, 앵초 등 40여종을 가지고 매발톱꽃 + 기린초 + 구절초 등 25조합을 작성하여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배치한 후 봄부터 생육 및 개화특성, 관상 가능기간 및 관상가치 등을 조사하였다. 분식은 길이 20cm, 폭 10cm, 높이 7cm의 타원형 화분에 마사토와 부엽을 7:3으로 섞은 상토를 이용하여 1년생 묘를 분식하여 관리한 후 노지에서 월동을 시키고 4월 중순에 온실로 입실하여 생육 관리하였다. 관수는 두상관수를 실시하였으며 월 2회 4종 복합비료를 2,000배액으로 희석하여 엽면 살포하여 주었다.

결과 및 고찰

대부분의 화종이 4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개화되었으며 관상기간이 80일 이상인 조합은 14조합이었고 관상가치가 3이상인 조합은 일반적으로 생육 및 개화기간이 양호한 조합으로 나타나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조합은 돌단풍+땅채송화+바위솔, 일엽초+뽕꼭나리+바위취, 동의나물+초롱꽃+벌개미취, 할미꽃+백리향+왕해국, 처녀치마+비비추+용담, 족도리풀+솔페랭이꽃+구절초, 족도리풀+바위취+상사화, 노루귀+땅채송화+용담, 노루귀+흰꿀풀+바위솔, 산마늘+솔페랭이꽃+왕해국, 앵초+솔페랭이꽃+무늬등굴레, 매발톱꽃+가시기린초+구절초, 은방울꽃+천남성+등근잎평의비름, 피나물+뽕꼭나리+용담, 동의나물+제비동자꽃+구절초, 은방울꽃+비비추+왕해국, 돌단풍+애기기린초+등근잎평의비름, 노랑무늬붓꽃+애기기린초+용담 등 18조합이고 나머지 7조합은 2~1까지의 관상가치를 나타냈으나 적심이나 생장억제제를 이용하여 초장을 줄인다면 분화용 분식조합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.